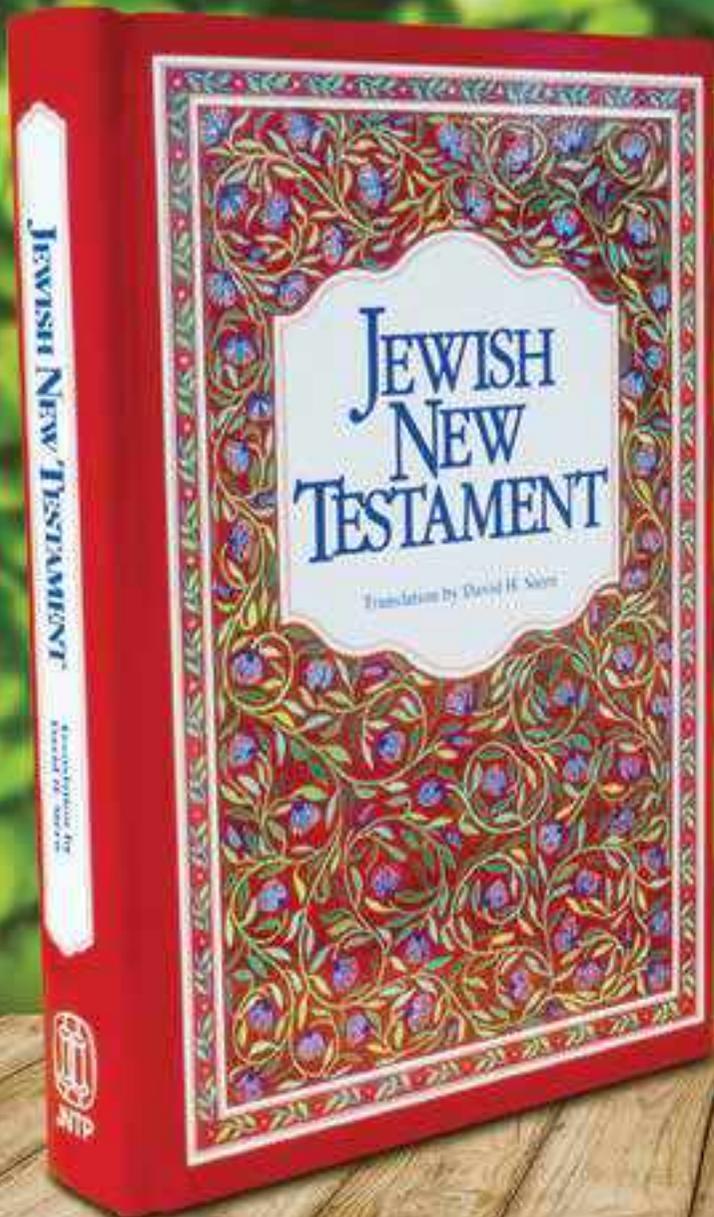


BRAD REPORT

NO.26

2020년 10월



브래드 브리핑

**유대인이 번역한
신약성경을 소개합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이정 목사의 토라포선’
강의를 시작합니다**

책임번역자 이승록

유대인 신약성경 특집 인터뷰

관한 걱정을 했습니다

제 성격은 무척이나 소심한 편입니다. 겉으로는 빨리 결정하고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하고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좌고우면하거나 우유부단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8월 19일 브래드 브리핑을 통해서 유대인 신약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방송하기 전만 해도 혹시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는 성경책을 왜 당신들 마음대로 성경을 번역하느냐' '오히려 더 헛갈리게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면 어쩌나 걱정을 하며 잠을 뒤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 신약성경 번역 작업은 꼭 필요한 일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것에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연약한 이유로 걱정이 그야말로 매일 밤 태산처럼 쌓였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기를 몇 날 며칠 그랬는지 모릅니다. 신약성경책을 새롭게 번역한다는 엄청난 일을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시간과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이 일을 과연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책이 번역되어 세상에 출판되어 나온다면 아마도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하는 걸 듣게 되니 저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저를 감히 모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며 그 일에서 피해 나갈 명분을 찾던 모세의 그 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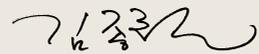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8월 19일 '유대인 신약성경을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 뒤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저도 체험하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유대인 신약성경 출판을 비난하는 댓글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소수에 불과했을 뿐이고 그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며 기다리겠다'는 댓글과 메일을 보내 주셨으며 방송한 지 약 한 달 동안 1,900여 권을 미리 책값을 지불하며 구입해 주셨습니다. 출판을 위한 후원금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함께 지켜본 성경 번역팀도 깜짝 놀라며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신을 갖고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읽고 있었던 신약성경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 번역되어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반유대주의가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유대인 신약 성경을 통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번역 과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홈페이지에 기록하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역팀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작업을 막으려는 그 어떤 방해의 시도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읽어야 할 때가 되었으니까요.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 5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유대인이 번역한 신약성경을 소개합니다
- 10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 14 유대인 신약성경 특집 인터뷰 - 책임번역자 이승록
- 16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18 이스라엘에서 온 뉴스
- 20 하나님 말씀의 능력 4부
말씀을 해방시키기 위한 혈전
- 24 이스라엘&중동 리포트
- 28 World Review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 30 브래드TV 8~9월 프로그램 리스트

초막절을 맞이해 통곡의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



도라포선 5781 2020

올법은 기록하고
계명도 기록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다
를 7:12

유대식으로
매주 읽는 말씀의 분량,
도라포선

티슈리월

티슈리월은 유대력의 첫 달
(닛산월로부터 일곱째 달)
로, 로쉬 하사나와 회개의
월을 음 키푸르, 수코트, 심
카 토라까지 기념비적이고
의미심장한 행사가 많은 기
간이다. 각 절기에는 고유
의 관습과 예식들이 가득한
데, 일부는 진지하고 경외감
가운데 반성과 영혼 탐구의
시간이고 일부는 기쁘고 즐
거운 환희의 날들이다.

10월 티슈리 & 헤쉬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1 티슈리 13
8:00
2 티슈리 14
3:00(10:00)
8:00(10:00)
3 티슈리 15
8:00(10:00)
10:00

수코트(초막절) 레 22:26~23:44 민 29:12~16 / 속 14:1~21 / 요 1:10~14 계 7:1~10: 21:1~4

4 티슈리 16
8:00(10:00)
5 티슈리 17
8:00(10:00)
6 티슈리 18
8:00(10:00)
7 티슈리 19
8:00(10:00)
8 티슈리 20
8:00(10:00)
9 티슈리 21
8:00(10:00)
10:00(12:00)
10 티슈리 22
8:00(10:00)

셈이나 아매렛 신 14:22~16:17 민 29:35~30:1 / 왕상 8:54~9:1 / 마 17:1~9 막 12:28~33

베조트 하브라카 (죽목이 어려하니라) 신 33:1~34:12 / 수 1:1~18 / 계 22:1~5

11 티슈리 23
8:00(10:00)
12 티슈리 24
13 티슈리 25
14 티슈리 26
15 티슈리 27
16 티슈리 28
17 티슈리 29

베레쉬트 (태초에) 창 1:1~6:8 / 사 42:5~43:11 / 요 1:1~14

18 티슈리 30
8:00(10:00)
19 헤쉬반 1
8:00(10:00)
20 헤쉬반 2
21 헤쉬반 3
22 헤쉬반 4
23 헤쉬반 5
24 헤쉬반 6

노아호 (노아) 창 6:9~11:32 / 사 54:1~55:5 / 마 24:36~46 변전 3:18~22

25 헤쉬반 7
26 헤쉬반 8
27 헤쉬반 9
28 헤쉬반 10
29 헤쉬반 11
30 헤쉬반 12
31 헤쉬반 13

레크 레카 (너를 위해 가라) 창 12:1~17:27 / 사 40:27~41:16 / 롬 4:1~25 갈4:21~5:1 히 7

11월 헤쉬반 & 키슬레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1 헤쉬반 14
2 헤쉬반 15
3 헤쉬반 16
4 헤쉬반 17
5 헤쉬반 18
6 헤쉬반 19
7 헤쉬반 20

바에라(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창 18:1~22:24 / 왕하 4:1~37 / 눅 1:26~38, 24:36~53 변후 2:4~11

8 헤쉬반 21
9 헤쉬반 22
10 헤쉬반 23
11 헤쉬반 24
12 헤쉬반 25
13 헤쉬반 26
14 헤쉬반 27

하에이 사라(사라의 삶) 창 23:1~25:18 / 왕상 1:1~31 / 마:1~17 고전 15:50~57

15 헤쉬반 28
16 헤쉬반 29
8:00(10:00)
17 키슬레브 1
8:00(10:00)
18 키슬레브 2
19 키슬레브 3
20 키슬레브 4
21 키슬레브 5

틀도트 (계보) 창 25:19~28:9 / 말 1:1~2:7 / 롬 9:1~31

22 키슬레브 6
23 키슬레브 7
24 키슬레브 8
25 키슬레브 9
26 키슬레브 10
27 키슬레브 11
28 키슬레브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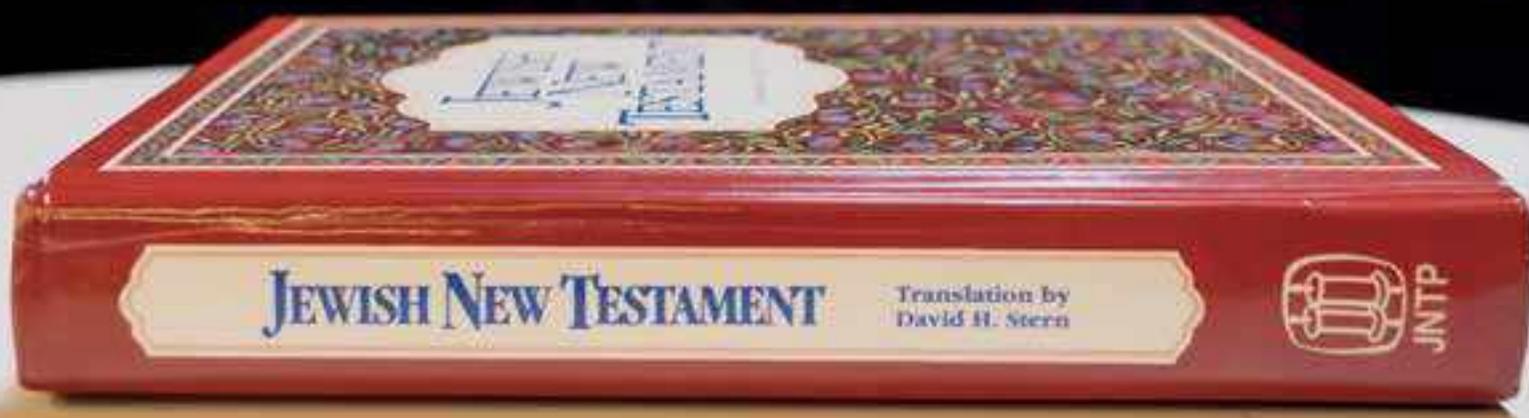
바에페 (그리고 그가 갔다) 창 28:10~32:2 / 호 12:12~14:9 / 요 1:19~51

29 키슬레브 13
30 키슬레브 14

바이실라호 (그리고 그가 보냈다) 창 32:3~36:43 / 음 1:1~21 / 히 11:11~20 마 26:36~46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랜드
브리핑**

유대인이 번역한 신약성경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개국 6주년을 맞이한 브랜드TV는 특별한 일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영어로 번역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번역되는 성경은 절대로 성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책과는 달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번역하려는 유대인 신약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지 그리고 유대인 신약 성경을 왜 브랜드TV에서 번역해 출판하려 하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김종철



영상 바로보기

유대인과 신약성경

우리 모두 이미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약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신약성경은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이며 표지를 봐도 안 되는 악마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유대인이신 예수님

예수님과 유대인이라는 두 단어는 분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신약성경의 중심인물로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유대인 무리 중에 자라나셨으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유대인이기를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일이 유대인 사회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유대인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유대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번역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읽고 있었던 신약 성경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방 언어로 번역한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어, 영어, 독일어로 번역된 것들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어를 번역할 때 그 민족의 기본 정서와 문화적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거나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이거나 심지어는 정반대의 의미로 번역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말씀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2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이 성하고 나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앞뒤 구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며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재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중간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유대 민족의 정서, 유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좀 뜬금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다는 말은 히브리로 ‘아인 라흐’(ayin ra’ah)라고 하는데 이는 ‘인색하다’를 뜻하는 것이고, 반대로 눈이 좋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인 토바흐’(ayin tovah),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앞뒤로 하신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너그움과 인색함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때 유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번역에 스며든 반유대주의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신약 성경 번역이 기독교

교 안에서 반유대주의를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신약 성경에서 드러나게 반유대주의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대 교회 때부터 반유대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의 구절을 악용하여 자신을 정당화하고 기독교 신학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번역가들은 본인들이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님에도 반유대주의적인 신학에 물들어 반유대적 번역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은 반유대적인 태도에 둔감하게 되고 유대 전통에 대해 무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학에 반유대주의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 자신도 반유대주의가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반유대주의자가 되어 유대인을 핍박하며,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9~1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사도바울이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관행이 되어 버린 이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인 사밧과 절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에서 비롯된 해석의 결과일 뿐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본인 스스로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평생을 토라의 말씀에 순종했고 사밧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유대인이 아닌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인

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야합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지키던 이교도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통해 “갈라디아인들이여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교도적 축제와 절기에서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르톨레메오 몬타냐(1450-1523)의
1482년 작품 성 바울(Saint Paul)

예를 하나 더 들까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킹제임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신약성경	for the goal at which the torah aims is the messiah who offers righteousness to everyone who trust 토라가 추구하는 목적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베푸시는 메시아이다

어떻습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또 기존 신약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빌레몬서 1장 2절, 로마서 16장 5절에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있고 목회적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두 **메시아닉 공동체**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공동체는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것 말고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중에 상당 부분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고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는 분명히 다른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엔 감람나무가 없는데도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로 번역하고 올리브 산을 감람 산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52:8)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2:39)

이스라엘에 뽕나무가 없는데 개역한글의 누가복음 19장 2~4절에서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목사직이 없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번역의 실수는 애교로 봐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용을 변질 시켜 번역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방인 번역가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누구보다도 유대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잘 아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신

약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번역하여 출판하려는 유대인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데이비드 헤럴드 스텐 박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신약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 데이비드 스텐 박사

193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헤럴드 스텐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UCLA의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37살이었던 1972년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아메리칸 주위시 대학으로 이름이 바뀐 유대교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았습니다.



데이비드 헤럴드 스텐과 그의 아내

1976년에는 유대인 선교 단체인 Jews For Jesus에서 1년 동안 스태프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미국 풀러 신학 대학에서 ‘유대주의와 기독교’ 과목의 강좌를 맡아 강의하며 메시아닉 유대인 컨퍼런스와 미국 메시아닉 유대인 지도자 모임들을 조직해 임원으로 섬기며 메시아닉 유대인 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1979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알리아하여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8년 메시아닉 유대인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

선언서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운동이 가진 사명과 정체성, 역사, 신학 체계, 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념비적인 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에 출판한 ‘완전한 유대 성경(the Complete Jewish Bible)’은 이방인의 문화와 전통이 아닌 유대인의 관점에서 번역된 성경책으로 전 세계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교과서처럼 읽고 공부하고 있는 필독 도서이자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책이 되었고 현재까지 영어를 포함해서 3개 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한국어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어 번역팀

한국어로 번역하는 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 신약성경을 번역하려면 물론 영어도 잘해야 하지만 우선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유대 문화에 익숙한 분이 번역해야 합니다. 현재 유대인 신약성경의 번역을 위해 책임 번역자 이승록 박사님, 그리고 권레아 목사님, 양해경 님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를 더해 번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인 신약성경 번역팀 회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번역해 원문 그대로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게 하는 일을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고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로막으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이겨내서 마침내 이 땅에 유대인 신약성경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버전의 성경책이 번역되어 출판되어 왔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 번역한 신약성경을 읽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이 번역한 성경책을 넘어서 유대인의 정서와 관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유대인이 번역한 신약성경을 읽으며 진짜 복음의 본질로, 예수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번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1차 번역, 2차 검토, 3차 검토까지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약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8월 1일 브랜드TV 개국 7주년이 되기 전에 저는 이 책을 반드시 번역 출판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비용은 산출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많이 들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 신약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구입해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 신약성경은 4백여 페이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책값을 3만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브랜드TV 홈페이지에 ‘유대인 신약성경 출판 프로젝트’라는 배너를 클릭하고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구입하려는 권수를 적어주시면 그럼 저희가 이름과 주소를 보관했다가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책 구입 가격 말고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후원자 명단을 신약성경의 맨 뒤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유대인 신약성경의 출판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기존의 신약성경이 잘못되었으니 그 책을 치워버리고 유대인 신약성경만 읽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존의 신약성경과 함께 유대인들의 신약성경을 비교해 가며 읽는다면 본질을 향해 훨씬 더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떠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신약성경의 출판을 브랜드TV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유대인 신약성경 출판 프로젝트 진행 현황

현재 유대인 신약성경 출판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출판 진행 상황은 브래드TV 홈페이지에서 유대인 신약성경 출판 프로젝트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을 기준으로 3명의 번역자들이 신약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1차 번역 중입니다. 1차 번역은 서문, 마태복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의 1차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는 번역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각자의 번역 분량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존 성경과 유대인 신약성경의 다른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번역할 때 통일해주어야 할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브래드TV 홈페이지를 통해 유대인 신약성경 출판의 출판 후원 페이지를 클릭하면 하단에 출판을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의 명단을 입금일 순으로 적어두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원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빠져 있거나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명단에서 빠지기를 원하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이 명단은 내년 출간될 유대인 신약성경의 맨 뒷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의 : 031-926-2722 / bradfilm123@gmail.com)

『이정 목사의 토라포션』 강의를 시작합니다



토라포션 책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 토라포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4일부터 초막절과 심카 토라 주간에 맞춰 ‘이정 목사의 토라포션’ 강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합니다. 심카 토라는 이스라엘에서 토라를 모두 읽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심카 토라 이후에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처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새 프로그램 ‘이정 목사의 토라포션’은 브랜드TV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는 수요일에 다른 영상들과 함께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브랜드북스의 도서 토라포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이정 목사님과 함께 한 주간의 토라포션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강의 영상과 함께 토라포션을 차근차근 묵상해 간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토라와 성경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서기 2020년도 벌써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대력으로는 이제 막 새해가 지났습니다. 새 마음가짐으로 토라포션을 함께 묵상하는 건 어떨까요?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브랜드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나팔절에서부터 28일 대속죄일까지 과천 벨엘교회에서 열린 이스라엘 컨퍼런스 ‘Re BUILD 다시 세움’을 브랜드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정기 구독자 10만 명의 브랜드TV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강사로는 미국의 마크 빌츠 목사, 이스라엘의 에레즈 쯔레프 박사, 웨인 히르텐 목사 등 외국인 사역자를 비롯하여 한국에서는 변순복 교수, 신성운 박사, 권혁승 박사, 김명현 박사가 참여했으며 김종철 감독은 23일 수요일에 ‘나팔절 전야에 이스라엘이 봉쇄된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외부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브랜드TV가 생중계를 하는 식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TV의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영성 있는 행사가 있다면 계속해서 협력하려고 합니다.

메시아닉 단체에 후원금을 송금했습니다

9월 18일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 사역자와 단체 5곳에 후원금을 송금했습니다. 아리엘 지역에서 홀로코스트 생존 자들과 사마리아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데이빗 오르티즈에 4,238달러, 아라드 지역에서 수단인과 베 두인을 위해 사역하는 요야킴 피구에라즈에 4,238달러, 그리고 텔아비브에서 매춘 여성들의 전도와 자립을 돕는 레드카펫 센터에 4,700달러, 같은 텔아비브에서 거리의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매춘 여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전도하는 아 비브 미니스트리에 4,700달러를 각각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영상에서 소개한 레크 레카 메시아닉 청년단체에도 차량 구입을 위한 후원금 7,818달러를 보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레크 레카는 하반기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차량 두 대를 모두 폐차하게 되어 어려운 상황이라는 기도 제목을 나눴었습니다. 방송 후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바로 후원 정보를 받아 송금하였습니다.

브래드TV가 후원금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메시아닉 사역자뿐 아니라 브래드TV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데이빗 오르티즈 사역자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한 안경 클리닉



수단 어린이들과 야외 활동을 나간 요야킴 피구에라즈 사역자와 그의 아들 엘하이



레드카펫 센터 내부와 책임자 아넷 브래너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아비브 미니스트리



레크 레카 단체에서 훈련받은 청년들

드디어 구독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브래드TV가 2014년 8월 1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첫 방송했을 때만 해도 정기 구독자의 숫자가 겨우 1천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구독자는 꾸준히 늘어나더니 지난 9월 21일 드디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요즘같이 각종 유튜브 채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야말로 유튜브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정기구독자의 숫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만큼 브래드TV는 더욱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와 성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만, 40만 구독자를 향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기 2021년 유대력 5781년을

토라포션으로 시작하세요!

토라포션 3만 원

여호와와 절기와 유대력 캘린더 9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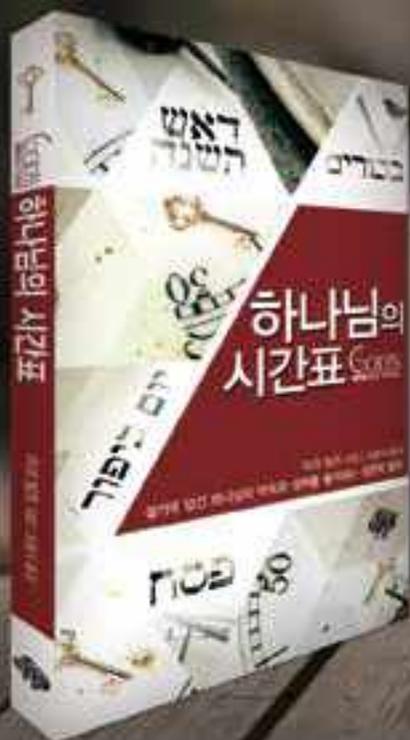
토라포션+캘린더 세트 구매하면 10% 할인



www.bradstore.com

가을 절기를 알고 싶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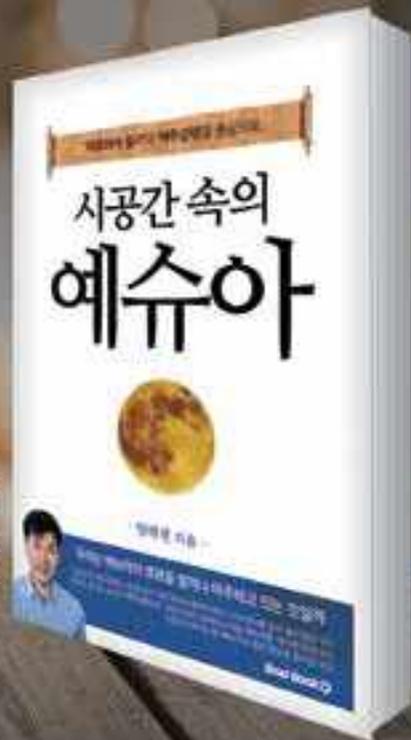
브래드 스토어에서 만나는 절기 관련 도서



하나님의 시간표

12,000원

마크 빌츠 지음



시공간 속의 예슈아

13,500원

정태권 지음



현재 3명의 번역자들이 신약성경을 나눠서 작업하는 중인데 번역 내용을 일괄적으로 다듬고 통일시키며 번역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이승록 책임번역자입니다. 유대인과 히브리어 등을 연구하는 헤브라이스트인 그는 중국 운남대학 국제관계연구원 박사이자 중화성도신학교 교수로 지냈으며, 이스라엘 히브리대 로스 버그 스쿨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현재 동북아 지역교류 포럼에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유대인 신약성경 특집으로 이승록 책임번역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 유대인 신약성경 책임번역을 맡게 된 소감

브래드리포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춘추전국시대라 할 정도로 여러 종류의 번역된 성경들이 나오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메시아닉 유대인의 신약성경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2. 브래드TV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번역을 맡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선교사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선교 지역에서 선교사로 오래 있다가 2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연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브래드TV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올해 초여름 즈음 브래드TV를 방문하게 되었고 김종철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유대인 신약성경 번역 출판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며 저에게 번역을 제안해서 저도 흔쾌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 메시아닉 유대인과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먼저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이스라엘 히브리대 로스 버그 스쿨을 다니며 그곳 도서관에서 동아시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관한 역사책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학의 국제관계연구원에 있을 때는 세계민족과 민족문제라는 파트에서 동아시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유대인들의 언어, 문화, 사상, 정서 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1999년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중간에 있는 벳바게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샤푸트 때가 되면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영국대사관 별관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함께 샤푸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만난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갈망은 무엇인

지, 예수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들의 정서가 궁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데이비드 스텐이 유대인 신약성경을 쓴지 10년 남짓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4. 번역을 맡은 부분과,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먼저 저는 책임번역을 맡고 있고 두 명의 번역자와 함께 번역팀을 이루어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자 1차로 초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공관복음(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서문, 용어집, 대조용어집, 그리고 지도입니다. 7월 중순부터 각자 번역을 시작하여 저는 9월 1일 기준으로 서문과 맛잇야후(마태복음)의 1차 번역을 마쳤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스텐 박사의 유대인 신약성경은 용어가 매우 중요하고 세 명의 번역자가 서로 용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용어집 번역과 말씀 번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에 홍차를 마시고 일을 시작합니다. 번역 일은 종일 매달려서 해야 해서 많이 할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합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하면서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5. 유대인 신약성경을 번역하면서 흥미롭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먼저 데이비드 스텐은 복음의 유대성 회복을 아주 강조하는데, 유대적 사고 그 틀 안에서 유대인 신약성경에 사용한 용어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유대적 사고의 표현을 보면 기존 성경에서는 ‘옷자락을 만졌다’고 표현하는데, 유대인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찌찌트(tzitzit)’, 즉 기도할 때 쓰는 탈릿의 끝부분에 달린 옷술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찌찌트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코헨하가돌’, 문둥병은 ‘짜라아트’, 십자가를 ‘치형 말뚝’, 교회는 ‘메시아닉 공동체’ 등 직접적으로 히브리 단어나 원문에 가까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6. 기존의 신약성경과 비교했을 때 유대인 신약성경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히브리어를 과감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히브리 단어 ‘샬롬’, ‘아멘’, ‘할렐루야’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신약성경에서는 인명뿐 아니라 지명에도 히브리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를 ‘케파’로, 가버나움을 ‘카르파나훔’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지리들을 구체적으로 연상할 수 있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나사렛을 ‘언덕 위에 있는 성읍’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그렇다면 유대인 신약성경이 출판된 후에는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먼저 독자의 읽는 자세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Life for Learning”, 평생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하기는 가능하다면 내년에 유대인 신약성경 한글판이 출간된다면 다른 성경은 물론이고 데이비드 스텐의 유대인 신약성경 영문판을 대조해서 볼 것을 권합니다. 유대인 신약성경 영문판 ‘Complete Jewish Bible’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 히브리어를 배울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으며, 심지어는 모음 없이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인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 적절한 언어로 계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응을 떠나서,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을 읽고, 써보며 천천히 배울 것을 권합니다. 히브리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필사하거나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관련 방송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방송을 보면 유대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유대인 신약성경을 보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 및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메시아닉 단체를 괴롭히는 가짜 뉴스
- 코로나19를 이겨낸 전도자
-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수련회



메시아닉 단체를 괴롭히는 가짜 뉴스

이스라엘의 서쪽,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스테롯(Sderot)에는 2001년에 있었던 가자 지구와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곳에 2000년부터 치료 상담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 메시아닉 단체 ‘시티 오브 라이프(City of Life)’가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부터, 극렬 정통 유대인 집단 야들 라킴이 시티 오브 라이프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야들 라킴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일반인에게 강제로 세례를 받게 하며 돈을 주고 개종하도록 매수한다는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야들 라킴은 스테롯의 건설관리국에 압박을 넣어 메시아닉 단체가 건물 사용 목적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으니 사용 권리를 취소하고 건물에서 내쫓으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스테롯의 건설관리국은 시티 오브 라이프가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와 쫓아낼 만한 빌미가 있는지 찾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건물에 불을 질러버려야 한다는 협박성 댓글이 퍼지고 있다.

시티 오브 라이프의 리더인 마이클 비너는 “화재 보호 설비를 강화해야 혹시라도 있을 극렬 유대인의 방화 위협에 대비할 수 있으며, 건설관리국의 트집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9,2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기도 제목

- 시티 오브 라이프가 핍박에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아를 만나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를 이겨낸 전도자

사도 베드로의 고향인 갈릴리에는 오늘날, 메시아닉 청년들이 직접 사역에 뛰어들어 전도에 힘쓰고 있는 단체 ‘트리 오브 라이프(Tree of Life)’가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길거리에 직접 나가서 복음 전도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감염 우려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어려움을 뛰어넘고 나선 노방전도에서 무려 5명이 넘는 불신자가 예슈아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

전도 받은 이들 중에는 유대교인이지만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던 지체가 있었는데 예슈아를 영접하고 그동안 내면에 있던 성 정체성의 갈등에서 벗어난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직접 목도한 트리 오브 라이프의 리더, 아리엘 하이드 형제는 “사람과 대면하여 전도하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다”라고 고백했다.

◆ 기도 제목

- 트리 오브 라이프의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질병도 메시아의 구원을 막을 수 없음을 증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전도자를 일으키셔서 사도행전 시대와 같은 믿음의 용사를 세우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수련회

이스라엘에는 매년 메시아닉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열어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 ‘캣지르(Katzir)’가 있다. 특히 캣지르에게 8월은 가장 바쁜 기간으로, 약 100여 명을 초청하여 수련회를 위해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행사가 취소되었다.

캣지르는 1995년부터 시작된 ‘텐츠 오브 멀시(Tents of Mercy)’라는 메시아닉 단체에 속한 사역 단체로 행사가 취소된 건 설립 이래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대신에 단체의 리더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연합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했다고 한다. 이 새로운 행사는 올해 10월에 있을 초막절에 맞춰 계획하고 있다.

캣지르의 비전은 이스라엘의 영혼 추수다. 비록 지금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사역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들은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 기도 제목

- 온라인 행사에 많은 청소년이 참가하여 예슈아 안에서 하나의 지체임을 상기하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내년에는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온 뉴스

글/ KRM News 정리/ 신승의

2020년 8월 셋째 주 <8월 13일 ~ 19일>

가자지구 방화 공격 잇따라... 이, 요격 시스템 공개

가자지구에서는 로켓과 방화연 공격이 계속됐고, 이스라엘군도 9일 연속 가자지구 내 하마스 거점들을 공습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에는 가자 주민 2백여 명이 국경 보안장벽을 넘으려고 시도해 이스라엘군이 수류탄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가자지구에서 날린 방화연으로 인해 월요일에만 약 75,900평이 불에 탔고, 지난 2주 동안 총 2백여 곳 넘는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날아오는 방화 풍선을 90% 이상의 적중률로 요격할 수 있는 새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공중에 있는 테러 물질을 90% 적중률로 파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새 레이저 시스템



방화연 공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가자 국경 나할 오즈 지역

이-UAE 평화협정으로 양국 기업 간 MOU 체결 잇따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양국 기업 간의 MOU 체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정밀기기업체 테라그룹 CEO가 아부 다비를 직접 찾아가 아랍에미리트 투자사 APEX과 코로나19 검사 장비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뒤이어 이스라엘 제약사 플루리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의 스템셀센터와 코로나 치료제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제약사 테라그룹과 아랍에미리트 투자사 APEX가 코로나19 검사 장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8월 넷째 주 <8월 20일 ~ 26일>

미 국무장관 예루살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지지 연설 녹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른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외교 정상화를 위한 중동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4일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려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후보로 추천하는 공식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산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연설을 녹화해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정부 직원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한 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금기시되던 수십 년 동안의 전통을 깬 겁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며,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이끌어 낸 외교 성과와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예루살렘 성전산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연설을 했다

2020년 9월 첫째 주 <8월 27일 ~ 9월 2일>

이스라엘-UAE 연락 사무소 공식 개원, 아랍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추진 중

이전까지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던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간의 비즈니스 연락 사무소가 외교 정상화 이후 공식적으로 개원해 벌써 2천 개가 넘는 회사들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레드 쿠슈너와 이스라엘 경제 협력단을 태운 엘알 국적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하는 역사적인 일이 월요일에 일어나면서, 쿠슈너는 카타르, 바레인 등과도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쿠슈너는 “아랍 22개국 모두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몇 주 안에 새로운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는 비행기에 아랍어, 영어, 히브리어로 '평화' 글자를 그려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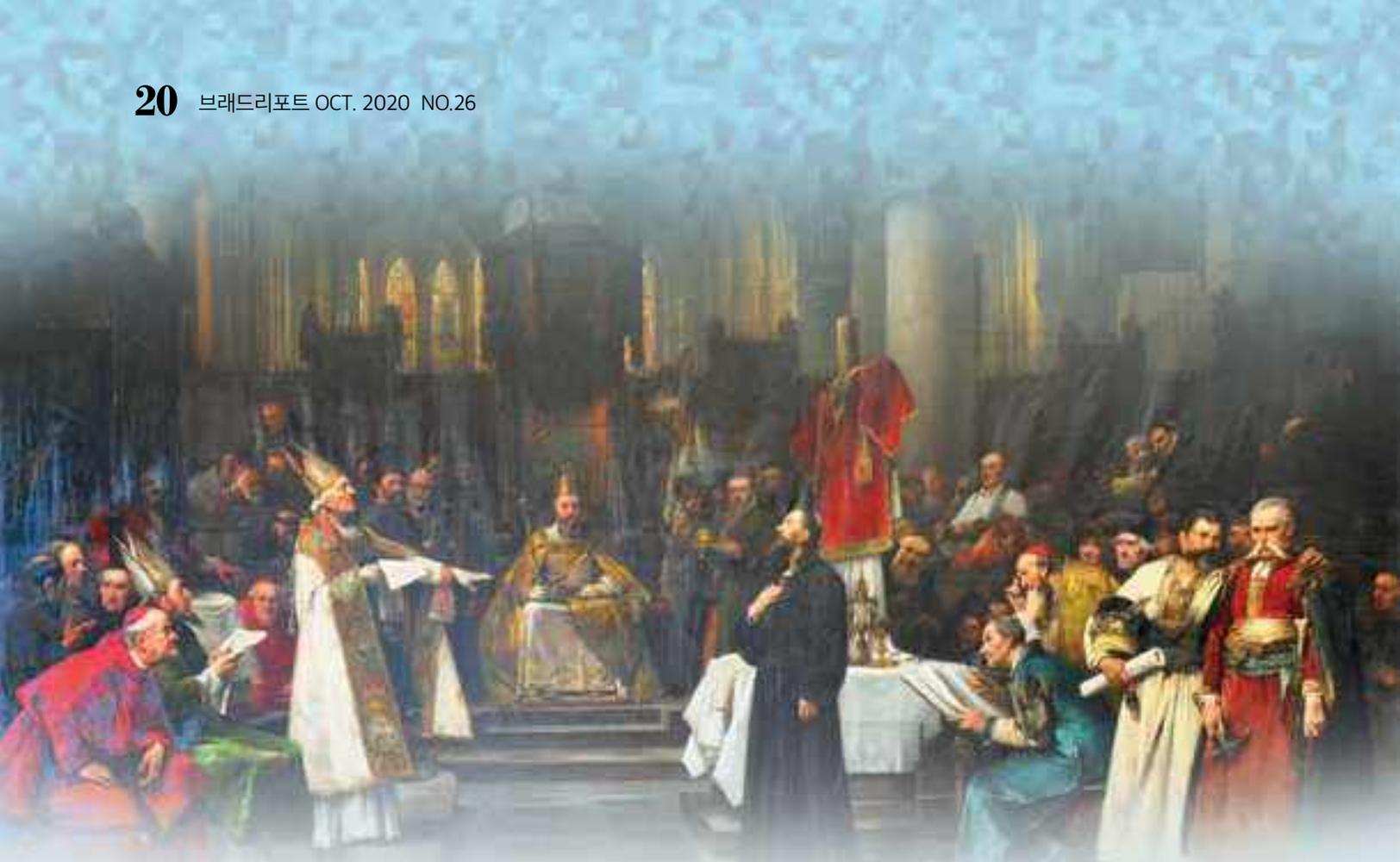
2020년 9월 둘째 주 <9월 3일 ~ 9일>

혼란스러운 코로나 대응과 완전 봉쇄 논의

이스라엘의 코로나 대응 위원회는 나라를 봉쇄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두 달 넘게 결정을 못 하고 있던 상황에서 수시로 방역 지침을 바꾸어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젊은 청년들은 술집에서 마스크도 없이 춤추며 붙어서 파티를 벌이고, 하이파에서는 초정통파 유대인 수백 명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시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응 책임자 감주 교수는 그동안 중환자 수와 병원 수용 능력을 고려해 부분 봉쇄를 제시했지만, 현재 중환자가 488명을 넘어 병원 수용 가능 인원이 최대 700~800명에 가까워지면서 4주에서 6주 동안의 완전 봉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실시되는 전국적 봉쇄는 9월 13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효됩니다.



초정통파 유대인 마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4부 말씀을 해방시키기 위한 혈전

글/ 쉬라 소르코 램

교황청의 권력이 강해지고 종교의 지배를 받았을 때, 서구 세계는 암흑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났을 때, 열방은 가장 진보된 문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어섰다.

A.D. 393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회람되던 많은 성경 사본을 연구했다. 이들은 예슈아의 원래 사도들이 기록한 진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과 확인이 불가능한 사본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단 27권만이 신약에 포함될 것이었다. 분명히 이토록 중대하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많은 조사와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신약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책으로 완성되기 이전에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50권의 헬라어 성경을 자신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여러 성장하는 교회에

배포하도록 명령했다. 단기간 동안 라틴어와 헬라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히 전파되었다. 그러나 476년,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교회가 정부를 장악하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허핑턴 포스트>의 기자는 이렇게 언급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교회는) 신자들이 공식 승인받은 신약성경에 몰입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짐작하지 않는가? 교회가 다른 복음서들을 없애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기독교인이 성경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회는 오히려 대중들이 스스로 성경

을 읽지 못하도록 막았다. 정책은 중세 시대 이후 더욱 심화하여 성경을 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1847년에 인쇄된 구텐베르크 성경은 미국인이 손에 넣은 최초의 사본이었다 (Wikipedia)

문맹에 빠지다

다른 사건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기독교계에 성경 필사가 늦춰졌다.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 두 제국으로 분열되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라틴어는 많은 유럽 현지어로 대체되어 사라져갔다.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불리는 동로마 제국에서는 헬라어가 귀족들의 공식 언어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중들은 다른 많은 현지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성경은 계속해서 라틴어와 헬라어로 필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언어 모두 읽을 수 없었고, 고등 교육을 받은 부자들만 글을 읽을 줄 알았다. 수 세기를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수도자들에게도 학교 교육을 장려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을 받은 종교학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수도자들은 라틴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했음에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필사했다.



독일의 어느 대학교 수업
- 라우렌투스 데 볼톨리나 작 (1350년대, Wikipedia)

부자만을 위한 교육

암흑기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가 없었다. 하지만 많은 도시와 마을에 부자의 자제들을 위한 교육은 있었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는 A.D. 900년 이전에 대학으로 발전했다. 1320년에만 하더라도 옥스포드에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대학교가 있었고 모두 라틴어로 수업했다.

중세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문 필사자들이 종교와 세속 문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도서 판매자들은 대학교와 성당, 학교 근처에 상점을 열었고, 서적 거래가 꽃을 피웠다. 물론 중세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멋진 삽화가 가득한 그림 성경책이 인기를 끌었다.

성경 완본은 거대한 크기 때문에 여러 권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권은 값이 매우 비쌌다. 부유한 성당과 대학교들만이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극소수만이 글을 알아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이 엄청나게 고가였기 때문에, 카톨릭 당국은 교구민들에게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안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후 법을 제정하여 성경을 읽을 권리까지 박탈했다.

굶주린 양들

그렇게 천 년 동안 로마 카톨릭 당국은 교황과 그들의 공의회와 함께,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양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빼앗았다. 유대인들의 역사적 행동을 정죄했던 로마 카톨릭은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통제와 부패가 인간의 본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되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난 시절 유대 지도자들을 비난했던 바로 그 죄를 똑같이 저질렀던 것이다.

수 세기가 지나면서, 교회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과 유럽 사람들에게 대한 지배와 통제가 더욱 극심해졌다. 어떤 학자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칼에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만큼 큰 범죄였다.

1229년 툴루즈 공의회 칙령: “우리는 평신도가 구약 혹은 신약을 소지하는

것을 금한다. 나아가 이 중 어떠한 번역본이라도 소지하는 것을 가장 엄격히 금지한다.”

1234년 타라고나 공의회 판결: “누구도 로망스어군으로 된 구약과 신약 책을 소유할 수 없으며, 책을 소유한 자는 이 칙령 공포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역 주교에게 제출해 소각하도록 해야 한다...”

로마 당국은 그들의 이단자를 제거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빼앗겼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죄가 교회를 장악했다. 그 시작은 지도자들이었고 결국 기독교계 전체로 퍼졌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높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감동과 갈망이 늘 있었다.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번역가들은 교회에 붙잡혀 이단으로 처벌받았다. 드디어 10세기에 한 익명의 성경학자가 용감하게 복음서를 영어로 번역했다. 그러나 기독교계 전역에서 번역본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회람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유럽의 다른 국가 사람들이 은밀하게 성경의 일부를 번역하고자 했다. 피터 발도는 교회로부터 1184년에 파문당할 때까지 프랑스에서 번역을 의뢰했다. ‘발도파’로 불리는 그의 추종자들은 유럽 전역으로 뻗어 나갔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 지하 운동을 일으켰다. 수 세기 동안 교회는 그들의 성경 전파와 배포를 중단시키려 끝없는 종교 재판을 열었고, 이 단체는 17세기에 거의 전멸되었다.

그러나 일부 살아남은 단체의 사람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로 피신했다. 피신한 이들에 영향을 받은 각 나라의 사람들은 13~14세기에 합세하

여 자국어로 된 성경을 요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성경은 유동적이고, 정밀하며, 폭넓은 단어 선택과 아름다움을 가진 유럽 토착어들로 번역된, 위대하고 기념비적인 성경 번역본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존 위클리프 (1328-1384)

그리고 ‘교회개혁 운동의 선구자’인 존 위클리프가 등장했다. 그의 핵심 교리는 “모든 기독교인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였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 출신의 신학자이자 교구장으로, 라틴어로 된 신약을 처음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다. 그가 신약을 번역한 목적은 기독교인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공부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었다.

교회는 위클리프를 정죄했지만, 옥스포드 대학교는 그가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했다. 또한 그는 제도권 교회의 권력과 부를 맹렬히 비난하며 옥스포드에서 매우 인기 있는 리더가 되었다. 저명한 신학자인 위클리프는 1374년 의회와 교황과의 협상에서 의회에 자문하기 위해 사절단으로 갔다. 당시는 교회가 전능한 세상이었는데, 영국에서 로마로 갔던 위클리프는 매우 분개했다. 교황은 부패와 사리사욕으로 악취가 났고 위클리프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위클리프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빈민들을 해방시킬 열쇠는 문맹 탈출이라고 보았다. 당시 대중들은 라틴어를 말하거나 읽지 못했기 때문에 검은 속셈을 가진 성직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하게 교황의 압력 때문에 위클리프는 캔터베리의 대주교로부터 정죄를 받고 옥스포드에서 해고되었다. 하지만 교황보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의 확신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6세기 존 위클리프의 초상화 (Wikipedia)

위클리프는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이어갔고, 3년 후에 사망하자 그를 이어 학자들이 1395년에 성경 전체의 번역을 완성했다. 성경을 숨기려는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민들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위클리프가 죽고 21년 후 당시 “이단자”로 불리던 위클리프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아른텔에게 비난을 받았다. 콘스탄츠 공의회의 칙령으로 위클리프의 유골은 무덤에서 파헤쳐져 유죄판결을 받고 부관참시를 당했다. 그리고 시신을 태우고 남은 재는 스위프트 강에 3번 뿌려졌다.

얀 후스 (1372-1415)

동시대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지식인들을 통해 성경을 자기 언어로 받을 것을 요구하게 하셨다. 그들은 이 일에 목숨을 바쳤다. 얀 후스는 체코 프라하 대학교의 교수이자 카톨릭 사제였다. 그는 존 위클리프를 잇는 제2의 교회 개혁가로 불린다. 그는 보헤미아에서 안수를 받고 신학자가 되었다. 그는 성경을 발견했을 때 큰 변화를 느꼈다. 그는 “주님께서 내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주셨을 때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버렸다”라고 증언했다.

존 위클리프의 글은 얀 후스의 성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성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었다. 개혁가가 된 얀 후스는 지역 교회 공의회와 권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다시 말해 교황의 권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성직자들의 도덕적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데 의욕이 넘쳤다. 그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붙들고 믿고 주장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러한 생각들이 성경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한편 선출된 세 명의 교황들이 모두 자신이 적법한 교황이라고 주장했다. 셋 중 한 명은 얀 후스를 파문시키고 그가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다. 교황이 자금을 채우기 위해 밀매한 면죄부 등 교황청의 철저한 도덕적 타락을 목격한 후스는 성경이 교회의 최종 권위라고 선포하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성경에 의지했다. 그는 2년 동안 수많은 논문을 열렬히 저술했는데, 그중 하나의 제목이 “교회”다. 이 논문에서 그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타락한 교황에 반역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414년 11월, 콘스탄츠 공의회가 소집되었고 후스는 쾅거루 재판(영터리 재판을 뜻한다)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당시 이렇게 말했다. “전능하시며 전적으로 정의로우신 유일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한다. 거짓 증인들과 그릇된 공의회가 아니라, 진리와 정의에 기초하여 내 뜻을 그분 손에 탄원한다.”

안 후스는 1415년 화형 당했고, 그의 재는 “이단자”의 흔적이 전혀 남지 못하도록 호수에 뿌려졌다. 그리고 그 재 위에 강력한 성경 기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모라비아 형제회’다. 그들은 전 세계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웨슬레 형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 모라비아 안 선교운동은 최초의 대규모 개신교 선교운동이었으며 오늘날까지 ‘모라비아 안파’라는 하나의 교파로 남아있다.

구텐베르크 인쇄 (1450)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이 기록된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발명되었다. 분명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기다려온 선물이었다!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1450년에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4년도 채 되지 않아 최초로 성경이 인쇄되었는데 다름 아닌 라틴어로 된 불가타 로마 카톨릭 성경이었다. 이는 여전히 부유한 귀족들만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불가타 성서가 널리 알려진 성경이었기 때문이다.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전 인류에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를 제시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회복을 일으키는 촉매제였고, 교육의 진보와 전례 없는 번영을 가져왔다.

교회가 성경을 불태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성경이 인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쇄기는 금세 카톨릭 교회에 적이 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 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성경이 그 본래 소유권자들에게서 간혀 있던

성경의 쇠사슬을 천천히 끊어내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언어권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전쟁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작동 중인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보여주는 목재 조각 스케치 (Wikipedia)

다음 호에 계속

출처 : 마오즈 이스라엘
www.maozisrael.org



왼쪽: 화형 당한 안 후스 -스피처 크로니크 (1485년) / 오른쪽: 16세기 안 후스 (Wikipedia)

9월

이스라엘 & 중동리포트 주요소식

정리/ 이다운



2020. 8. 31 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타결

지난 8월 한 달 동안 계속된 가자지구 테러단체의 방화 풍선 공격이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타결하면서 마침내 중단됐다. 이 같은 테러는 카타르가 팔레스타인에 현금을 지원해오던 것이 9월부터 중단될 예정이어서 팔레스타인이 다가올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한 것이며,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부과한 경제 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방화 풍선 테러로 인해 매일 하루 수십 건에 달하는 화재에 시달렸고, 이에 대응하여 한 달 동안 폭격한 하마스 목표물이 100군데에 달한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물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상업 건널목을 폐쇄하고 가자지구의 어업 수역을 15해리에서 8해리로 축소하는 경제적 강경 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자지구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인도주의적 위기가 상생하고 경제적 봉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타결하고 폭력사태를 종결시켰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상업 건널목 봉쇄를 해제하고 어업 수역을 제한했던 경제적 압박을 완화했다.



◆ 기도 제목 ◆

한 달간 이어지던 가자지구의 폭력 사태를 종식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군사적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도록,
 또 물자가 부족한 가자지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020.9.15 화

나팔절 맞아 우크라이나로 순례 떠난 초정통파 유대인 수천 명, 우크라이나 국경서 고립

나팔절을 맞아 우만에 있는 랍비의 묘지를 순례하기 위해 떠난 수천 명의 순례자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고립됐다. 매년 3만 명의 초정통파 유대인이 나팔절마다 우만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미리 국경을 봉쇄했다. 그러나 벨라루스를 통해 육로로 입국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사이 국경에 약 2,500명의 순례자가 모여 들었다. 2주 가까이 고립되자 식량과 물이 떨어졌고 적십자가 이에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했다. 순례자들은 “우만에 도착하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며 우만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모든 외교적 협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 모든 초정통파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귀국했지만, 이들은 국경 지대에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남기고 돌아갔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하고 있다.



◆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아를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은 열정으로 예수아를 따르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는 이들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기도합니다.

2020.9.18 금

나팔절 오후 2시부터 이스라엘 3주간 전국적 봉쇄 돌입

9월 16일 이스라엘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총 6,063명으로 연일 새로운 기록을 돌파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은 대절기 기간에 대규모 이동을 통한 최악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나팔절부터 3주간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렸다. 모든 국민은 집 밖으로 1km 이상 이동할 수 없으며, 슈퍼마켓과 약국 같은 필수 물품 판매처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번 3주간의 봉쇄로 인해 총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2천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 기도 제목 ◆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이번 봉쇄로 인해 완전히 꺾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나팔절과 경외의 날, 속죄일 동안 봉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찾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외교 정상화

2020. 8. 13 목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평화 협정 체결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이름 붙인 평화 협정에 합의했다. 이 평화 협정의 조건은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합병 중단이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첫 걸프 지역 아랍 국가이자, 아랍 국가 전체로는 이집트와 요르단에 이어 세 번째 국가가 됐다. 이집트와 바레인, UN이 '중동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평화 협정을 환영한 가운데, 팔레스타인은 이 평화 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비열한 배신'이라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이란도 '이번 협정은 아랍에미리트의 거대한 실수'라고 반응했다.



2020. 8. 31 월

이스라엘 국적 여객기, 아랍에미리트의 하늘길 열다

8월 29일,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보이콧을 공식 폐기한 것에 이어 8월 31일에는 이스라엘 국적 여객기가 UAE로 역사적인 첫 직항 비행을 마쳤다. 이 비행에는 재러드 쿠슈너 보좌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이스라엘 정부 대표단이 탑승했다. 투입된 보잉기의 기체 외부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영어, 아랍어로 새겨졌다. 또 이번 비행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해 비행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역사를 기록했다. 9월 2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UAE를 오가는 모든 국가의 항공편에 대해 영공 횡단을 허가해 이스라엘에 UAE로 가는 영구 비행권을 부여했다. 한편 아랍권 예술가들은 이스라엘-UAE 평화 협정을 반대하며 팔레스타인의 지휘 아래 UAE 주최 문화 행사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2020.9.11 목

이스라엘-바레인, 평화 협정 체결

UAE에 이어 바레인도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바레인은 이로써 걸프 국가로는 두 번째, 아랍 국가로는 네 번째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되었다.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바레인 방문 당시, 바레인 왕에게 자비로 구입한 토라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9월 9일 아랍 연맹 화상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UAE 평화 협정을 규탄하는 공식 선언문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지만, 아랍 연맹은 이에 대해 한목소리를 도출해내는 데 실패했다.



2020.9.15 화

이스라엘-UAE-바레인, 백악관서 평화 협정 공식 서명식 열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UAE, 바레인 외교부 장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을 공식화하는 서명식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행사 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을 나라가 7~8개국 정도 더 있다고 발표해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9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쿠웨이트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을 것”이라 발표했고, 9월 21일에는 온두라스가 2020년 이내에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백악관에서 서명식이 있던 날, 팔레스타인에서는 수백 명 규모의 평화 협정 반대 시위가 펼쳐졌고, 15일 밤과 16일 새벽에는 평화 협정에 반대하는 의미로 가자지구에서 13발의 로켓을 발사해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가는 평화 협정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중동 전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World Review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이 기사는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Endtime ministries에서 발행되는 Endtime 잡지에 기고된 글을 옮긴 것으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예언하고 있는 각 영역에 대해 전 세계가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6번째 나팔

중국-이란 협정

이란과 중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25년 경제 및 안보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 군사 훈련, 연구 및 무기 개발,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이번 협정은 이란과 중국 간의 군사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안은 두 나라에 대해 “고대 때부터 존재한 아시아의 두 나라가 서로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를 제재하는 법안과 행정 명령에 서명하자, 중국은 미국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보복을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홍콩 자주법은 중국 관리들과 은행을 제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홍콩의 무역 특혜를 중단시킨다.

이란, 시리아,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이 특정 단독법들의 소행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이란과 시리아,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새로운 판례가 정립되었다. 이번 판례는 지금도 계속되는 단독법들의 공격에 대해 테러 단체와 테러 지원국들이 최대 수십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성로마제국

유럽연합에 대한 독일의 리더십

수십 년 동안 독일은 유럽 내 영향력 발휘를 자제해왔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유럽연합은 독일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일부 유럽 사상가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우리에게 유럽이 필요한 것처럼, 유럽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연설했다.

브렉시트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영국의 입장을 유럽연합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회담을 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현 전환 기간 종료까지 초읽기가 계속될 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했고,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 미국 주도의 세상은 끝, 중국의 부상

아시아가 미국을 대신해 세계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최고위 외교관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전략”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대유행이 서에서 동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으며, 유럽연합이 “양측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집승의 표

코로나19,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추세를 가속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화폐 접촉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공식 지침을 통해 소매업 종사자들에 무접촉 결제 방식 사용을 권장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계는 현금 없는 사회의 성장을 소비자 주도형에 대한 흐름이라며 반겼다.

스타링크 인터넷, 베타 테스트 참가자 모집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지구 저궤도 인터넷 서비스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다. 그들은 베타 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비공개 베타 테스트 이후에 공개 베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는 테스트가 모두 잘 마무리되면, 스타링크의 가격은 한 달에 80달러 정도 될 것이며 초당 1기가비트까지의 속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면 인식이 사생활을 해칠 것인가?

안면 인식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휴대폰 잠금 해제와 같은 간단한 행위에도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생체 인식 데이터를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을까? 범죄자들이 회사의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훔쳐서 딥 웹의 암시장에 팔 수도 있다.

세계 정부

트럼프, WHO에서 탈퇴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으며, 내년 안에 탈퇴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탈퇴 통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WHO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며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지키게 됐다.

유엔 의회와 세계연맹을 고려해야 할 때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국제사회가 맞게 된 의료 및 경제의 이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 세계 정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앞장서서 촉구해왔다. 브라운 전 총리는 지금이 70년 전부터 제안돼 온 세계연맹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새로운 사회계약” 제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전 세계적 “사회계약”인 ‘뉴 글로벌 딜’을 제안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뉴 글로벌 딜을 통해 사회적 병폐인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그의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초국가적 접근법을 발표했다.

세계 종교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가 식량과 집을 잃을 것인가

중국 공산당 정부는 고령의 크리스천들에게 종교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기초 연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에 관한 온라인 잡지 ‘비터 윈터’는 중국 공산당이 “고령의 성도들에게서 마지막 생존 수단을 빼앗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거비, 음식비, 의복비, 의료비,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엄중한 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진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 행정명령은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 행정명령 위반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으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과거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간청을 무시한 국가들에 강경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이슬람 기도가 영구적으로 드러질 수도

영국 전역의 이슬람 사원들이 라마단 동안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를 전하기 위해 대중 방송 시스템을 사용한 이후, 현지 이슬람 단체들은 이 아잔을 영국에서 영구적이며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 아잔은 BBC를 통해 “신은 위대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이다. 기도하러 오라.”라는 내용으로 번역됐다.

지난 8~9월 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브래드TV 8~9월 프로그램 리스트 (8/26 - 9/16)

브래드쇼

8/26

미국의 시위 이스라엘과 유대인
때문이다?

/ 조슈아 강 (1)



9/2

알리아의 신호탄이 된
코로나바이러스

/ 조슈아 강 (2)

9/9

팅 비어버린 예루살렘 지키는
한국 선교사

/ 죠이스 정 선교사



9/16

예수님의 재림과 나팔절의 관계

/ 정태권 목사

이스라엘 & 중동리포트

8/26

- UN 안보리 대이란 무기 금수
연장 부결, 美 스냅백 시행 변경
- 폼페이오·쿠슈너, 평화 협정
드라이브 위해 중동 방문조"
- 이스라엘, 가자지구 테러단체
표적 살해 정책 복귀하나



9/2

- 레바논 국경 비상 경계 태세...
IDF, 헤즈볼라 관측소 타격
-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
경제 제한 해제
- 팔레스타인 남성, 한낮 대로변서
이스라엘 랍비 살해

9/9

- 이스라엘-UAE, 외교 정상화 구
체화 돌입... 금융 및 항공 열려
- 아랍계 예술가들, 이-UAE 협정
반대하며 UAE 주최 문화 행사
 보이콧
- 이스라엘 군, 시리아 내 이란 군
사 영향권 타격... 3명 사망 실시



9/16

- 백악관서 이스라엘·UAE·바레인
평화 협정 서명식 열려
- 팔레스타인, 협약 반대 시위...
서명식 중 가자지구서 미사일
13발 발사
- 쿠슈너, "평화 협정은 두 국가
해법 살리기 위한 것"

브래드 브리핑



9/2
트럼프 재선 밀어주기?
이스라엘-UAE 평화협정



9/16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팔레스타인

지금은 마지막 때



- 8/26
마지막 때와 현금없는 사회 (2)
- 9/9
4천 년 전 예언의 성취, '아브라함 협정'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8/26
- 메시아닉 청년단체 레크 레카의 열정과 고난
- 코로나19와 신생아의 생명을 돌보는 베아드 하임
- 아비브 미니스트리가 요청한 기도 제목



- 9/9
- 메시아닉 단체를 괴롭히는 가짜 뉴스
- 코로나19를 이겨낸 전도자
-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수련회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 8/26
- 이스라엘 & 아랍에미리트 평화협정
- 이란과 손잡은 중국
- 15년 전 가자에서 철수한 이스라엘 평화는 어디에?



- 9/2
- 이스라엘 & 아랍에미리트 예언의 성취?
- 고난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 성경의 관점으로 현재의 사건을 바라보다

- 9/9
- 폼페이오 이스라엘과 중동 방문
- 희귀한 고대 유물 금화 발견
- 중동 뉴스를 전하는 새로운 웹사이트



- 9/16
- 이스라엘 장병, 시리아 내전 구호 활동
- 쿠르디스탄에서 자행된 IS의 기독교인 박해
- 예수님이 다녔던 고대 순례길 발굴

금요 샅밭 예배



- 8/28 안식일(샅밭)이 왜, 중요한가?
/ 이재철 목사
- 9/4 언약 안에서 저주와 회복 / 이정 목사
- 9/11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 이재진 선교사
- 9/18 죄악론-1. 죄란? / 김종배 교수

이스라엘 ON 유튜브



- 9/9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 9/16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이유는?
한 시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기타 프로그램

- 9/2 토라 속의 진주 1회 - 사랑할 누군가를 찾아서
- 9/9 토라 속의 진주 2회 - 쉬모트 (이름들)
- 9/16 토라 속의 진주 3회 - 마지막 다섯 번째 잔
메시지 -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 평촌이레교회 한홍식 목사

금요 사뵓 예배 온라인 생중계

LIVE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 시각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유튜브 채널 'Brad TV'의 종🔔 모양을 눌러 온라인 생중계 알림을 받으세요!

브래드 리포트는 매달 2~3째 주에 배송되고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시면 반드시 연락주세요.